2026년 8월 5일 제 54호

연 구 위 원 김 종 호
연 구 위 원 오 유 진
연 구 원 이 예 린

하나로연결된 모두의금융

HIF 월간 산업 이슈(8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음식료품 CJ제일제당,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전분당 사업 매각 추진

- CJ제일제당은 K푸드 및 고부가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상대로 성장성이 낮은 전분당 사업의 분할 매각을 검토
- FI의 사업 인수 후에도 CJ제일제당의 설비와 거래관계가 함께 승계되며 과점구조가 유지될 전망이나, FI의 회수 전략에 따라 중장기적 시장구조는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

이차전지 美 ESS 확대 및 세액공제 효과 등으로 2분기 실적 개선

- 미국 ESS 생산 확대 및 이에 따른 AMPC 증가, 일회성 이익 등으로 '26년 2분기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
- 하반기에는 미국 ESS 양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 지역의 전기차 볼륨모델向 배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 우려

정보서비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AI 데이터센터(AI DC) 추진의 발걸음

- 대한민국 대도약 국가과제로 선정된 AI 데이터센터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준비가 되었으며, 이후로 민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최근 AI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는 지역 반대와 전력, 냉각이 확보된 입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혁신기술 기업의 발굴과 국민성장펀드 및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통한 전략적 투자 필요

산업 이슈

음식료품
CJ제일제당,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전분당 사업 매각 추진

이차전지
美 ESS 확대 및 세액공제 등으로 2분기 실적 개선

정보서비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AI 데이터센터(AI DC) 추진의 발걸음

C10-11. 음식료품

CJ제일제당,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전분당 사업 매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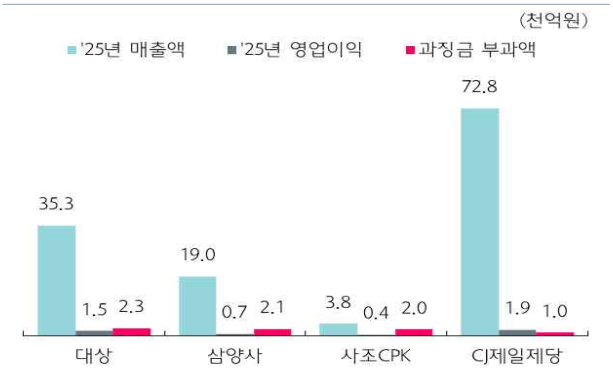
연구원 이예린

※ Summary : CJ제일제당은 K푸드 및 고부가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상대로 성장성이 낮은 전분당 사업의 분할 매각을 검토. 전분당은 B2B 수요가 안정적이나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 크고 최근 담합 제재로 규제 부담도 확대. FI의 사업 인수 후에도 CJ제일제당의 설비와 거래관계가 이어지며 과점 구조가 유지될 전망이나, 향후 FI의 회수 전략에 따라 중장기적 시장구조는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 또한 주요 업체들이 고부가 소재를 확대하며 고부가가치화 경쟁은 심화될 전망

■ CJ제일제당은 고부가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전분당 사업 매각을 검토

- CJ제일제당은 주요 재무적투자자(FI)를 상대로 핵심 소재 사업 부문 내 전분당 사업부의 분할 매각(카브아웃)을 추진 중이며 3,000억원 수준으로 매각가가 거론
- 전분당은 식품, 제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B2B 소재로 수요가 안정적이나, 주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가 상승분의 판가 전가가 어려워 성장이 제한적
- 또한 '26년 7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전분당 4개사의 장기 가격담합 적발로 CJ제일제당은 1,03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며 규제·관리 부담이 발생
  - 주요 3사의 과징금은 전년 영업이익을 넘어서며 부산물 가격 담합 등 추가 제재로 부담 확대될 가능성
- CJ제일제당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매각 추진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고부가 기술 소재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일환
  - CJ제일제당(별도 기준)은 '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20% 감소한 -86.5억원

그림1 | 전분당 4개사의 실적(별도) 및 담합과징금



자료 : 언론보도 종합, 각 사 IR자료

표1 | CJ제일제당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

구분	As-Is	To-Be
사업 부문	식품	라이프스타일식품 글로벌 K푸드 센터 (비비고 글로벌 전략제품)
	바이오	기술소재 핵산, 테이스트앤리치, 친환경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 사료용 아미노산, 설탕·밀가루·알룰로스 등
		신소재
재편 목적	고부가 사업 중심의 성장성·수익성 강화	
주요 전략	CJ피드앤케어 및 비핵심 부동산 매각, 한계사업 매각 등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FI 인수 이후에도 경쟁 구도는 유지되고 고부가 소재 중심의 산업 재편이 가속

- FI의 사업 인수로 운영주체가 달라져도 CJ제일제당의 기존 생산설비와 거래관계가 인수법인으로 함께 승계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 공급 능력과 점유율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
  - 전분당시장은 대규모 생산설비와 원료 조달망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서 상위 4개사가 시장 점유율의 86.4%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 구조도 유지될 가능성이 큼
- 다만, 담합 제재에 따른 독자적 가격 결정과 3년간의 가격 변경 보고 의무로 기존 시장구조가 유지되더라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업체별 사업 전략은 달라질 전망
  - 범용제품의 가격 경쟁과 규제 부담이 확대되며 향후 업체 간 경쟁은 대체당 등 고부가 제품 생산능력 및 해외 거래처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CJ제일제당은 고부가 소재 집중을 위해 저성장 범용 소재 매각을 검토하는 한편, 대상과 삼양사는 전분당 생산기술·설비를 활용해 알룰로스를 비롯한 대체당 중심으로 사업을 육성하는 등 식품 소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가 가속화될 전망

■ 전분당 사업 매각 성사 여부와 FI의 회수 전략이 중장기 시장 재편을 좌우

- 전분당 사업의 안정적인 B2B 거래 기반과 현금창출력은 매각에 긍정적 요인으로 사모펀드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분할 매각의 복잡성과 담합 후속 소송 및 규제 비용의 부담 주체 등이 기업 가치 산정과 가격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 CJ제일제당 전분당 사업부의 연매출은 1,000억원 미만, 상각 전 영업이익은 300억원으로 추산
- 사업 매각시 CJ제일제당은 확보한 자금을 K푸드·고부가 소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거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비핵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가 달라질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FI의 사업 운영 및 회수 전략이 시장 변수로 작용하며 향후 재매각 대상과 사업 운영 방향에 따라 시장 참여자와 경쟁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
  - FI가 인수할 경우 사업 효율화 이후 재매각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시장구조 변화는 불확실

표2 | 주요 4개사의 전분당 사업 관련 전략

기업	주요 내용
대상	• 대체당 브랜드 론칭('24), 알룰로스 신제품 출시('26) 등 대체당의 B2C 라인업 확대
사조CPK	• '24년 인그리디언코리아 인수 후 기존 식품사업과 전분당·기능성 소재 연계를 추진
삼양사	• 알룰로스, 케스토스 등 스페셜티 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25년 고객 맞춤형 솔루션 공개
CJ제일제당	• 주요 FI를 대상으로 사업부 분할 매각 검토 • 저성장 범용 소재를 정리하고 K푸드·고부가 기술 소재에 투자 집중

자료 : 언론보도 종합

표3 | CJ제일제당 전분당 사업 부문 매각 시나리오별 영향

시나리오	CJ제일제당	시장
매각 성사	• 매각 자금 확보, K푸드 고부가 소재 투자 확대	• 인수법인 포함 4개사 경쟁구도 유지
매각 지연·중단	• 전분당 사업 유지 및 추가 자본 효율화 전략 추진	• 기존 경쟁구도 유지
FI인수 후 재매각	-	• 재매각 대상에 따라 시장 구도 변화 가능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C282. 이차전지

美 ESS 확대 및 세액공제 효과 등으로 2분기 실적 개선

연구위원 오유진

※ Summary : 美 ESS 생산 확대 및 이에 따른 AMPC 증가 등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금년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함.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북미지역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아시아 및 유럽이 호조를 보이며 가동률이 개선됨.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LG엔솔, 삼성SDI의 신규 ESS 시설이 추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ESS 생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또한 전기차 수요가 가장 양호한 유럽 등에서 볼륨모델용 배터리 공급이 늘어나고, 완성차의 배터리 재고 소진에 따른 합작공장 재가동 등이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

■ (2Q 실적) ESS 확대 및 AMPC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배터리 3사 모두 흑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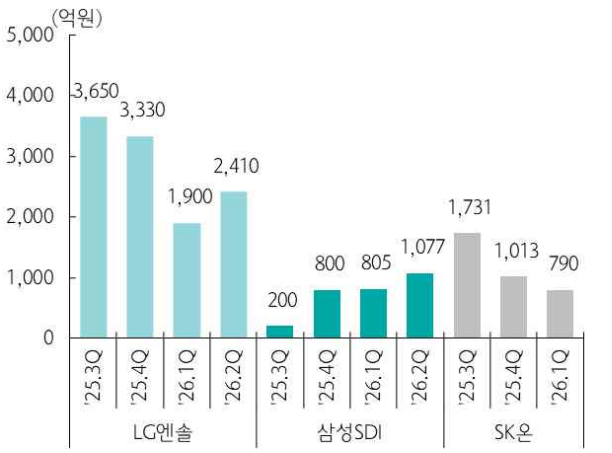
- (LG엔솔) 북미 ESS 생산에 따른 AMPC 보조금 증가 등으로 '26년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QoQ)에 성공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77%(YoY) 감소하며 개선폭 제한
  - 동사 ESS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후반까지 확대
  - 다만, ESS 셀 생산 후 협력업체가 팩으로 조립하는 후공정 작업이 지연되며 램프업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편
- (삼성SDI) 2분기 영업이익이 2,038억원을 기록하며 7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전기차 회복보다는 ESS 중심 AMPC 확대, 고부가 UPS·BBU 수요 성장 등이 크게 작용
  - 美 상호관세 환급(1000억원대 수준)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며 컨센서스를 상회
- (SK온) 아시아 지역 판매 확대 및 AMPC 효과, 고객사 보상금 등 일회성 이익 반영에 힘입어 영업이익 8,218억원을 기록했으며,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

그림2 | 주요 이차전지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주 : 연결기준, '26년 하반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치
자료 : Value Search, Fnguide

그림3 | 주요 셀 기업별 AMPC 동향



주 : AMPC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의미
자료 : 각 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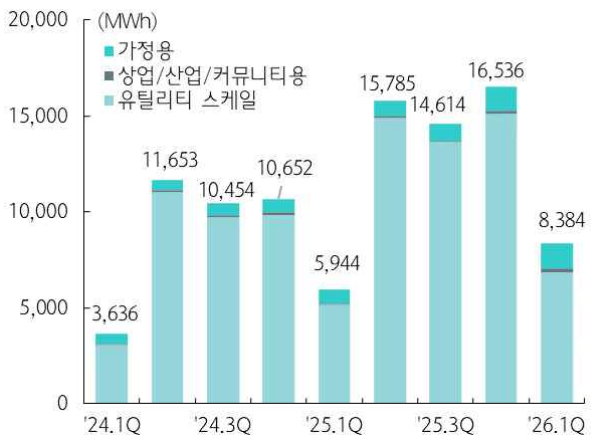
■ (하반기 전망) 美 ESS 생산 가속화, 유럽 중심 전기차 수요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 지속

- 미국 주요 ESS 생산거점이 라인 전환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가운데 상반기 문제가 되었던 후공정 병목 영향이 점차 축소되며 ESS 생산이 가속화될 전망
  - 후공정 병목은 비자문제 등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 LFP 팩 조립 경험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신규 ESS 가동: (LG엔솔) 얼티엄셀즈 테네시 및 오하이오 혼다 합작('26.7~), (삼성SDI) 스타플러스('26.9~)
- 삼성SDI가 헝가리에서 현대차/기아의 유럽 EV 볼륨모델(EV2·아이오닉3 등)向 납품을 시작하고, LG엔솔과 GM의 JV(얼티엄셀즈 1공장)가 재가동('26.3Q~) 되는 등 전기차 부문도 회복
  - 현재 유럽은 보조금 및 고유가로 전기차 판매가 호조세('26년 1~5월 EV 판매 증가율 27.5%)
- 국내에서도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 및 배전망 ESS 사업 첫 시행, 전기차 판매 호조 등 배터리 수요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 중

■ (이슈) AI 데이터센터向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경쟁 리스크 상존

-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ESS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부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ESS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내부에서도 정전 시 비상전력 공급을 위한 UPS(무정전 전원장치)·BBU(배터리 백업 유닛)가 요구되는 등 ESS 배터리의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UPS·BBU는 순간적인 고출력 성능과 높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제품으로 다른 제품군 대비 수익성이 우수
- 올해 삼성SDI의 UPS·BBU용 배터리 매출은 전년대비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LG엔솔은 '26년 상반기에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포함 3조원 이상의 ESS 신규 수주 확보
- 한편, 테슬라가 최근 경쟁 심화로 산업용 ESS의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혀 ESS 시장 내 가격 경쟁 과열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상존
  - 美 ESS 수요 증가로 GM·포드 등 완성차 기업들이 ESS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등 경쟁 가열

그림4 | 미국의 분기별 ESS 설치 실적



자료 : Wood Mackenzie, 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

표4 | 기업별 ESS 사업 추진 동향

기업	ESS 사업 동향
LG에너지 솔루션	- '25년말 ESS 수주잔고 140GWh 확보했으며, '26년 글로벌 신규 수주 90GWh 목표 - '26년 말까지 글로벌 ESS 생산능력을 60GWh로 확대하고 이 중 50GWh를 북미에 집중 배치 - '26년 북미 내 총 5개의 ESS 생산거점 구축 예정
삼성SDI	- '29까지 생산능력의 상당량 채울 수 있는 수주 확보 - 울산공장과 美 스타플러스에너지 JV 공장 포함하여 ESS 생산능력 30GWh 이상으로 확대 추진 - 美 공장 '26년 4Q부터 LFP 배터리 양산 예정
SK온	- 국내 1.8GWh 수주, 글로벌 20GWh 수주 목표 - '26년 하반기부터 美 조지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

자료 : 언론보도 종합

J63. 정보서비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AI 데이터센터(AI DC) 추진의 발걸음

연구위원 김종호

※ Summary :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높은 전력과 고효율 냉각 설비의 적용이 요구되며, 이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솔루션의 적용이 필요. 더불어 거대 부지에 대규모 컴퓨팅이 가능한 서버 인프라를 수용해야하는 점에서 입지 확보에 어려움 존재. 이를 위해 국회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는 부처별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시. 향후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AI 데이터센터에 국가 펀드와 국내외 민간 기업의 투자를 기대

■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제정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美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기점으로 국내 AI 데이터센터 설립의 교두보 마련

-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6.29)’에서 AI 데이터센터 분야 투자 계획이 발표
  - AI 연산에 소모되는 대규모 토큰 생산능력을 확보하도록 하이퍼스케일러[1] 수준의 AI 데이터센터를 고려
  - 1단계 8.4GW(550조 원), 2단계 10GW(1,000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국내 최대 AI컴퓨팅센터 및 관련 솔루션의 초대형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도록 AI생태계 클러스터를 구성할 예정
-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도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AI 분야 협력기반 조성으로 인해 반도체와 피지컬 AI의 연결고리로써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기대감 형성
  - SKT와 엔비디아/앤트로픽/AWS, 네이버와 엔비디아/브룩필드 간 AI 데이터센터 투자추진 협약 체결
- 한편, 국회의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과 투자 의욕 고조
  - 부처별 분리된 인허가의 과기정통부 일괄 처리, 지연 인허가 ‘타임아웃제’ 승인 적용, 비수도권에 특구 지정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반시설에 적용되던 조형물 등 건축·시설 규제 완화를 특별법에 포함

표5 | AI DC 특별법 및 美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협약

정책	AI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
AI DC 특별법 (6.9제정)	• 신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등 전력 특례 • 건축/시설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자금 지원 • 비수도권 AI DC 특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AI 서밋 (7.24)	• SKT, 5GW, GPU 200만 장 규모 AI DC 투자협력 추진 – 엔비디아: 2GW급, GPU 베라루빈 AI DC 지원 – 앤트로픽: 국내 GW급 AI DC 프로젝트 투자 – AWS: 울산 AI DC 파트너십, GW급 AI 컴퓨팅 추진 • 네이버, 100억 달러 규모 글로벌 AI 팩토리 투자 유치

자료 : 법제처, 언론종합

표6 | 주요 데이터센터 등 개발/투자 예정 기업 및 관련 사항

개발/투자주체	지역	규모	특징
삼성SDS 컨소시엄	해남	80MW	국가AI컴퓨팅센터(GPU 5만장)
SK텔레콤(SK그룹)	울산 등	5GW	울산(1GW)+5개 권역별 1GW
GS그룹	동해	2.4GW	1.2GW 단위로 2단계 확장
네이버	세종 등	1GW	세종은 270MW로 확장 계획
네오AI클라우드	포항	300MW	1단계 40MW, 2단계 260MW
메가데이타코리아	원주	120MW	3개동 40MW 단위 확장 계획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언론종합, 하나금융연구소

1)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한 거대 데이터센터로,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 역량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

■ 정책 지원에 힘입은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추진 계획에 대한 기회와 우려

- 주요 대기업[표2]은 AI 산업 내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지방 권역별 하이퍼스케일러급 AI 데이터센터 개발 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일자리 등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에도 동참
  - 하이퍼스케일러는 서버/DB/GPU/TPU 임대를 넘어,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보안서비스, 대용량 콘텐츠 배포 등 클라우드에 적용된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서비스로 확장 추진 중

- 다만, IT/전력/냉각시스템 등 전후방 산업이 연계된 풀스택 AI 데이터센터 입지 확보에 난항
  - 하이퍼스케일러도 AI 급성장에 대응하려 세계 여러 곳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나, 지역 내 반발과 비용·조달 측면에서 전력, 냉각용수 공급이 원활한 입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
  - 국내기술 기반 전력망, 냉각설비, 시설제어 AI 솔루션의 클러스터 조성에도 정부 주도형 추진 불가피

■ 전략적 AI 데이터센터 설립 조기 추진에 따른 연관 혁신기업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 정부는 '26년(下) 경제성장전략 3·4·5비전(7.14)'에서 정부주도와 민간투자를 통한 AI 데이터센터 조기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및 협약지원 의지 표명
  - AI 데이터센터 28년 상반기 착공 추진, 국가AI컴퓨팅센터에 GPU 1.5만 장 이상 확보 등 AI 고속도로 구현 가속화,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 유치 지원으로 글로벌 AI허브 조성 계획 추진

- AI 데이터센터 입지의 지역민 공감대 형성, 전력망과 냉각용수 확보 등 과제가 해결된다면,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의 여신·투자 기회에 빠른 판단과 자원집중 필요
  - D2C(직접냉각), 액침냉각, 분산전력망, 고압직류(HVDC) 공급, 광학 스위칭(OCS) 등 혁신기술 보유 데카콘 기업 발굴과 국민성장펀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한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필요

표7 | 국내 데이터센터 가치사슬 내 주요 기업과 관련 기술

대기업/공공	보유기술	세부 사항	중견/중소	보유기술	세부 사항
삼성공조	고성능 냉각 솔루션	냉각 칠러 및 산업 열교환 기술	지에스티	1/2상형 액침 냉각	반도체 칠러 기술 기반
LG유플러스	Hybrid 냉각	D2C 액체+공랭식 냉각, 파주 AIDC 인프라 실증	케이엔솔	고밀도 침지 냉각 (엔비디아 GPU 적용)	액침냉각 글로벌 1위 서브머와 파트너십
SK에코플랜트	폐열/친환경 냉각	LNG 배관 냉열 활용 냉각수로 GPU 수랭 냉각	삼화에이스	Hybrid 냉각 및 대형 시설 맞춤형 공조 설비	공/수랭식 결합 하이브리드
SK이노베이션 (SK엔무브)	특수 절연 냉각유	GRC,LG전자와 액침냉각 동맹	로드파워	고압전력 부하시험 (Load Bank) 장비 제조	냉각분배장치, 액체냉각 서버 인프라 성능 사전검증 지원
삼성중공업	부유식 데이터센터	모듈화 해상구조물 (LNG-연료전지), 해수침지냉각	이피코리아	무정전 전원장치(UPS) 지능형 전력분배기(PDU)	친환경 고효율 전력 솔루션
ETRI	광 스위치 국산화	원격 메모리 접속 표준, 부족 메모리의 이웃 서버 활용	옵티시스	초고속/장거리 전송 가능한 AIDC용 디지털 광링크 기술	광소자 및 광모듈, AIDC 800Gbps 광트랜시버 제조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언론종합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